

대행 스님

모든 거에 착을 두지 않으면서도 여여하게 그냥 해나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말 보시, 말 보시도 무주상 보시입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학식을 많이 쌓아서 그걸 봐 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뽑아 가지고선 여러분에게 해 드리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만한 마음이 전체의 우주를 덮고 받치고 굴리면서, 여러분한테 극진히 내 마음을, 내 몸을 조금도 가리지 않고 말씀해 드리는 이건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까?

또 물질 보시가 있습니다, 물질 보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참, 말은 안 합니다마는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 보시를 합니다. 여러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선 물질 보시도 많이 합니다. 물질 보시도 많이 받지마는 받는 나는 없습니다. 준 것도 없고. 대신에 나는 심부름꾼이니깐요. 여러분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극히 잘나서 내 돈이 있어서 여러분을 주는 것도 아니죠.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꿉장난할 때에 놀다가 해가 지면 소꿉장난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 종이짝같이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심부름을 할 때에 어떻게 심부름을 잘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실하냐는 거죠.

또 뜻의 무주상 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참, 한생각 내 주는 그 마음이 물질로 주는 거보다 수백 배, 수만 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에 위안이 되고 당장에 뭐 조금 됐다고 그것만 고마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세세생생을 내다보십시오. 한번 마음 뜻을 들인 것은 세세생생에 변치 않을 겁니다. 이것이 보살의 행이요, 바로 무주상 보시인 것입니다. 자기와 둘이 아니게끔 아픔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둘로 본다면 상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무주상 보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세생생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깊숙한 뜻을 모르셔서 그렇지 어디 거지이든, 아프든, 죽어서 지금 헤매고 도는 사람이든, 살아서 헤매고 도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둘이 아니라고 그건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거는 과거로부터 좇아 나온 그 업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놓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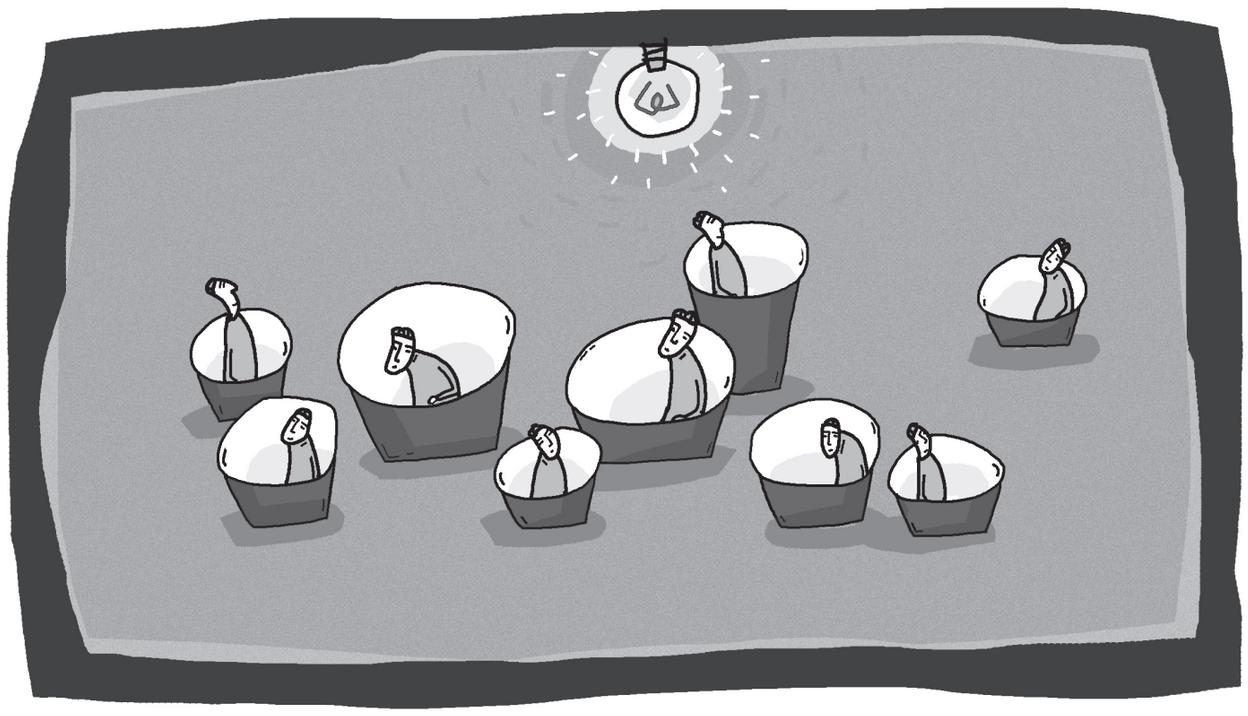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딪칠 때에 그것을, 카세트에서 나오는 걸 카세트에다 되놓는다면 그 앞서 감겼던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이 능력이 생겨서 에너지가 다 자식들한테도 갈 수 있으며 부모들한테도 갈 수 있으며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한테 갈 수 있으며, 우리는 세세생생에 돌아가면서 금빛 나는 광력이, 자력이, 전력이 그대로 충만해서 이 우주에 어느 곳에 아니 닿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의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어떠한 신비적인 일이, 신비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마는 신비도 신비가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알아야 신비가 있는 거고 신비가 있음으로써 타신의 모든 것을 알고 돌아갑니다. 타신의 모든 것을 앎으로써 그것을 내 자유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을 건지려면 세 집, 네 집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 "스님, 사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안 걷힙니다." 이러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세 집, 네 집을 거쳐야 그 돈이 걷혀. 한 사람 건지는 데 산 사람을 이렇게 하는 데도 그것이 얼마나, 만약에 몸으로 다닌다면 바빠서 못 다니고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음이라는 거는 체가 없어서, 반야심경에도 있듯이 수만 개로 내 모습을 각각 해 가지고 그 수만 개가 여기에 들어와도 두드러지지가 않고, 수만 개로 나가서 모습을 각각 해 가지고 일을 해도 바로 줄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뜻을 아신다면 이 몸뚱이는 여러분이 보라고 놓고 또 내가 여러분을 봐야 하니까 이것이 집중적인 하나의 모습이지마는, 모습 없는 모습들은 수없이 나가서 손 없는 손으로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다니면서 어디고 아니 들르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보살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시렵니까?" 해도 부처라고 말 못 하고, "그럼, 보살이 되시겠습니까?" 해도 보살이라고 말 못 하고, "법신입니까?" 해도 법신으로 말 못 하고, "그러면 신중, 신장입니까?" 해도 신장이라고 말 못 하느니라. 갔다가도 뭐가 될는지, 요구하는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된다고 말 못 하느니라.

또한 내 부모를 내 부모라고 말 못 하는 원인은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남의 부모를 남의 부모라고 말 못 하는 것이다.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말 못 하며 남의 자식을 남의 자식이라고 말 못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행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이 증득한 행이다 이 소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죽은 사람 산 사람이 더불어…, 우리가 쇳송을 한번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하고 칠 때 증득한 사람의 마음은 온 누리에 전부 퍼져. 왜 그러냐?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이지. 이 도리를 모르고 종성을 하는 사람은 자기밖엔 못 들어,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그 뜻도 모르고. 그러니 어찌 여러분한테 공덕이 가겠습니까?

공덕이라는 건, 복이 아니라 공덕 말입니다. 공덕 안에 복도 들어 있고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아서 우리가 정녕코, 정녕코 나고 드는 것이 빈틈없는데, 이거는 여기서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모든 것을 먹고 가고, 먹고 놓고, 감사하게 놓고 그저 '여기밖에는, 여기서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발전소라면 수없는 발전소에, 이거는 꺼지고 켜지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거야.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같이 원형으로 아주 에너지가 꽉 찬,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가발전소. 에너지라면 수없는 전력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 다 가설이 돼 있듯. 그리고 허공에도 다 가설이 돼 있습니다. 천체물리가 왜 생긴 겁니까? 그리고 천체통신기가 왜 생긴 겁니까? 무전통신기도.

그러니까 가설이 다 돼 있는데 쓰고 안 쓰는 건 여러분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백만 가지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전력은 으레 거기서 나오니까. 전력이 없어서 못 쓰는 법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